

음식 통해 전북 매력 널리 알린다

브랜드공연,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전북의 맛 집밥대전' 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달 27일 전주 한옥마을 대사습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음식문화관광진흥원(원장 김관수, 이하 진흥원)과 협력해 '전북의 맛 집밥대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향토 미식 콘텐츠를 발굴하고, 차후 프로그램의 여행 상품화를 목표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북애향운동본부 윤석정 총재, 전주시 노인회 전영배 회장, 전주대 최원철 명예교수, 사회서비스원장 서양열 원장 등 도내 음식 관련 전문가와 도외 관광객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는 전주의 농경지역을 배경으로 발굴한 '애호박황포목밥'에 대한 스토리와 전주의 미식 현장을 '박선영 한국조리기사'가 소개했다.

콘텐츠 발표 외에도 △메인 테마 요리 조리 시연, △목밥과 전주 십미(十味) 기반 정식 시식, △이희정 밴드의 퓨전국악 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전북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지역의 숨겨진 맛을 발굴하고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27일 전주 한옥마을 대사습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음식문화관광진흥원과 협력해 '전북의 맛 집밥대전' 행사를 개최했다.

한편, 재단은 '전북의 맛 집밥대전'을 통해 7월 1일부터 도내 서부 해양지역과 중앙 농경지역, 동부 산간지역의 숨겨진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마케팅팀(063-230-748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2년 연속 획득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전통예술지역 브랜드 상설공연(이하 브랜드공연)이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1일 재단에 따르면 브랜드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정사업 169개 중 99.4점을 받아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전통자원을 소재로 한 공연예술 창작콘텐츠 개발·운영을 통해 전통공연예술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 중심의 문화 균형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과 '한옥마을활용 야간상설공연'을 통합 운영, 도내 6개 지역(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임실군, 고창군)에서 총 60여 회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북이 가진 전통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볼거리와 즐거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연 문의 및 사전 예약은 △전주(권파이브) 063-288-5525 △익산(세종전통예술진흥회) 070-4197-9661 △남원(남원시립국악단) 063-620-5583 △김제(예술집단얼굴) 063-547-1237 △임실(임실팔봉농악보존회) 063-643-1902 △고창(고창농악보존회) 063-562-2044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장수군, 순수예술 결합 '여름을 그리다' 공연

장수군이 오는 4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다원예술 공연 프로그램 '여름을 그리다' 공연을 선보인다.

'2024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군이 주최하고, 사계아트엔컬처(대표 서진은) 주관으로 마련된 '여름을 그리다'는 클래식 음악 공연에 장수군의 여름을 주제로 그리는 드로잉쇼를 결합한 순수예술 간의 합작 공연이다.

특히 20인의 연주자로 구성된 앙상블 '로시오 델 솔'이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뮤직,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비발디 사계 중 여름 등 익숙한 클래식 곡을 연주하며,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드로잉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군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들이 프로그램의 제작에 나선 만큼 특별한 무대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단체 사계아트엔컬처의 서진은 대표가 연출·기획을 맡고, 비올리스트 겸 음악감독 진동근과 피아니스트 작가 배철호가 함께 제작에 나서 눈길을 끈다.

군은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거주 중인 전문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군민들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간의 협업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되는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등록미술관 기념 첫 기획

'이건용과 국립군산대학교 현대미술작가 12인전' 3~30일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미술관이 등록미술관 승인 기념 첫 무대로 '이건용과 국립군산대학교 현대미술작가 12인전'을 개최한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올해 4월 전북지역 대학미술관 최초로 등록미술관 승인을 획득했고, 올해 가을에는 '이건용 미술관'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어, 이번 전시회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

한국 실험미술의 거장인 이건용 화백은 신체 드로잉 시리즈(바디 스케치)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들어섰다. 1981년부터 1999년까지 국립군산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및 우수 작가들을 많이 배출했고,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직을 맡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군산대학교 미술학과 출신 중 개성이 넘치는 작품으로 지역뿐 아니라 현대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2인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12인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현대미술의 길 위에서 토대를 쌓은 후 현재 회화, 사진, 퍼포먼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참여작가는 강경숙, 강용면, 김병철, 김관목, 노승범, 신석호, 심홍재, 유기중, 이미영, 이미영, 이주원, 최광석 등 12인이다. 회화, 사진, 설치, 퍼포먼스 등 27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현대미술의 오늘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임영희 미술관장은 "등록미술관 승인을 위해 전시실을 리모델링하고 전문적인 미술관 운영을 위한 학예연구실을 마련했다. 학예인력을 배치하여 등록미술관으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할 민방의 준비가 되었다. 앞으로 등록미술관으로서 또한 이번 국립군산대학교 미술관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장호 총장은 "앞으로 지역의 국립대학으로서 지역문화예술 기반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해나가겠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 예술인이 활발하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그동안 대학과 지역을 잇는 문화예술의 가교역할을 하며, 시민과 지역 아동 및 청소년에게 고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전시는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국립군산대학교 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외 자세한 문의는 국립군산대학교 미술관(063.469.4383~4384)으로 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이건용과 국립군산대학교 현대미술작가 12인전' 3~30일 개최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문화강좌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지난달 26일 수강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김제 벽골제 문화강좌'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추진된 이번 강좌는 한림대학교 영정섭교수 '조선시대의 수리정책과 벽골제'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국립대구박물관 정대영 학예연구사가 '알고보면 반할지도'라는 주제로 고지도를 통해 김제와 벽골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날은 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오승환 원장의 '벽제의 미술레 가이드에 초대합니다'라는 주제로 고고자료를 통해 음식문화를 다뤄 호응을 얻었다.

강운석 벽골제이러닝사업소장은 "이번 문화강좌를 통해 국가유산 김제 벽골제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역사·문화를 활용해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